

저여머시!(승리에수!)

승리의 주께서 동역자님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 네팔로 들어갈 때만 해도 다시 선교지에 돌아간다는 기쁨으로 설레었지요. 네팔 입국 후 2주 자가 격리를 마친 후에도 마스크 없이 생활하시는 네팔 분들 사이에서 여전히 조심하며 한인교회 성가대도 하고 신학교의 고난주간 프로그램들도 함께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 발 델타바이러스가 삽시간에 네팔, 방그라데시, 파키스탄 등 주변 국가들로 번지게 되어 네팔 정부는 4월 25일부터 모든 학교 수업 중단, 29일부터 2주간의 Lockdown을 공표하였습니다. 작년의 경험으로 보아 2주씩 계속 연장되어 몇 개월이 될 것임을 알기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네팔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이 낯설음과 설레임을 맛보며 약간의 흥분된 마음으로 지낸 지 40여일이 채 못 되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재 확산과 함께 대면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아쉬운 마음 가득 안고 신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여름방학을 앞당기는 것이고 6월 1일부터 수업 시작하여 학기 끝냄과 동시에 새 학기를 시작한다. 모두 건강해라”고 하였지만 어차피 락다운이 쉽게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교수들 모두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락다운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확진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 5월 중순이 되자 하루 2만 명 검사에 9천 5백명 확진으로 45.5%를 기록하였습니다. 검사는 주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 온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나라처럼 검사를 했다면 하루 십만 명도 넘었을 것입니다. 연일 글로벌 뉴스에는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보도되고 있었지만 인구대비 47배가 적은 네팔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인도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이번 네팔의 2차 대유행이 끝나기 무섭게 곧바로 가을에 3차 대유행이 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공항도 폐쇄되어 모든 입, 출국이 중단된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포함한 한인 교포들의 확진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으며 한 두 분의 경우 매우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기도 하였지요. 급기야는 신학교의 요리사인 비네스 형제의 아버님이 코로나로 사망하셨고 아카데미 단 뿌런 교수의 장인어른도 가셨습니다. 지난 봄에는 장신대 학부 동기 형님이신 온두라스의 김상익 선교사님이 갑자기 코로나로 천국을 가셨고 얼마 전 파키스탄의 신대원 동기이신 이준재 선교사님도 이번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천국을 가셨습니다. 두 분 모두 열정과 실력을 갖춘 20년 이상의 선교 베테랑들이셨는데요...

대한항공 전세기 관련 소요를 파악한다고 할 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딸 하영이의 둘째 출산을 위해 8월 귀국 계획이 있었지만 저는 연말쯤이나 귀국할 생각이었는데 갑작스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조기 안식년을 청원하기로 하고 일시 철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침 월세 집 2년 단위의 계약도 만료가 가까웠기에 주인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고 짐을 정리하여 신학교에 옮기기로 한 것이지요. 작년에도 잠시일 것으로 생각했던 코로나 피난 귀국 일정이 10개월이나 되면서 집세가 얼마나 아깝던지... 큰 짐은 별로 없었지만 2주 동안 작은 짐들을 싸고 나르며 (락다운 중에도 아침 시간에는 반찬거리 구입을 위해 2시간 정도 동네 왕래를 허용하는데 신학교는 1km 거리에 있어서 저의 승용차로 짐을 옮겼습니다.) 바쁘게 보내다가 6월 5일에 귀국하였습니다.

신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이번 주 시험과 함께 학기를 마무리하고 곧 바로 다음 주부터 새학년을 시작합니다. 네팔 전국적으로 고등학교(+2과정) 졸업고사를 치르지 못한 상태여서 신입생들 입학은 두 달 정도 늦을 듯하고 졸업식도 8월 중에 최소한의 인원 참석으로 제한하여 락다운 종료 즉시 갖게 될 것입니다. 협력 목회자들의 생계 지원과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용 네트워크 사용료 지원을 위해 네팔 선교회에서 특별 후원을 해 주셨으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가운데에서도 개인 후원자 두 분이 후원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는 임신 7개월 차 딸을 위해 17개월 된 손주를 돌보느라 주로 딸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저는 안식년을 어떻게 보낼지를 기도 중입니다.

모든 분들 위에 주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여머시!